

전일동향

전일대비 1.10원 하락한 1,362.70원에 마감

17일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전장대비 1.10원 하락한 1,362.70원에 마감했다. 이날 환율은 NDF 증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3.80원 하락한 1,360.00원에 개장했다. 환율은 중동지역 긴장 완화에 위험회피 심리가 일부 진정되며 하락 흐름을 이어갔다. 다만, 달러 저가매수 유입 등에 하단이 지지되며 1,362.70에 증가(15:30 기준)를 기록했다. 주간장중 변동 폭은 5.70원이었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시점의 엔-원 재정환율은 941.40이다.

전일환율변동	구분	시가	고가	저가	종가	평균환율 (매매기준율)
	달러	1360.00	1374.00	1359.00	1362.70	1361.70
	엔화	941.96	945.86	936.58	937.64	-
	유로화	1576.40	1581.87	1563.42	1564.30	-

* 시가/고가/저가/종가 : 달러는 익일 06:00 기준, 엔화 및 유로화는 15:30 기준

F/X(달러-원) 스왑포인트		1M	3M	6M	12M
	보장환율(수출)	-1.12	-6.85	-15.63	-30.39
	결제환율(수입)	-0.85	-5.96	-13.76	-26.93

* 해당월 최종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
 * 당일 청약시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바,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https://www.ksure.or.kr/rh-fx/index.do>) 확인

금일 전망

중동발 리스크 오프에...1,370원대 후반 중심 등락 전망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2.85원)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1,362.70) 대비 19.15원 상승한 1,379.00원에서 최종호가 됐다. 금일 환율은 이스라엘-이란 간 무력 충돌에 미국의 개입 가능성이 커지며 상승이 예상된다.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G7 일정을 조기 종료하고 귀국한 이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중동 개입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압박 수위를 높이며 이란의 무조건적인 항복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시장에서는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확대되며 미국채 금리는 장단기 모두 하락하였다. 달러화는 0.70% 상승한 98.83pt를 기록했다. 국제 유가(WTI)는 중동 사태 장기화 우려에 4.28% 급등했다. 한편, 미국 5월 소매판매는 전월대비 0.9% 감소하며 시장 예상치(-0.6%)를 하회했다. 핵심 소매판매는 예상치를 상회하여 소비 위축 징후는 관찰되지 않았으나 전반적인 소비 둔화 가능성을 자극했다. 금일 환율은 중동 불안 확대 우려 속 안전자산으로서의 달러 강세에 연동되어 상승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수출업체 네고 등은 상단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372.40 ~ 1382.80 원
체크포인트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952.57 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19.15원 ↑
	■ 美 다우지수 : 42215.8, -299.29p(-0.7%)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115.08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16176 억원